

▶ 내신 기출 문학 미래엔-상편 ◀

1. 문학의 기능과 원리

- (1) 배를 매며 (40문제)-----1쪽
- (2) 성난 풀잎 (31문제)-----19쪽
- (3) 어부사시사 (52문제)-----33쪽
- (4)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54문제)-----55쪽

2. 문학의 수용과 생산

- (1) 이생규장전 (55문제)-----84쪽
- (2) 쉽게 씌어진 시 (40문제)-----117쪽
- (3) 스노우맨 (33문제)-----137쪽
- (4)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31문제)-----159쪽
- (5) 저녁에 (14문제)-----178쪽
- (6)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36문제) -----184쪽

3. 한국 문학의 개념과 성격

- (1) 제가야산독서당 (35문제)-----210쪽
- (2) 황진이 (29문제)-----224쪽
- (3) 나도 그들처럼 (9문제)-----247쪽
- (4)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35문제)-----255쪽

◆빠른 전체 정답-----276쪽

◆해설-----280쪽

교재 버전: 2021.02.01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이생규장전’ 분석 정리

작품 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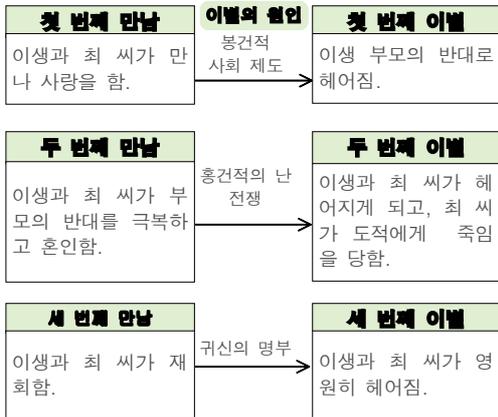
간체	전기 소설(傳奇小說), 한문 소설
성격	전기적, 낭만적, 비극적
배경	• 시간: 고려 말 / • 공간: 고려의 개성(송도)
주제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
특징	현실의 제도, 전쟁, 운명과 대결하는 인간의 의지가 드러남. ② 산 사람과 죽은 사람 간의 사랑을 다룬 부분에 전기적 특성이 드러남. ③ 삼입 시를 활용하여 등장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함. ④ ‘만남 - 이별’을 반복하는 구조로 사건이 전개됨. ⑤ 유(儒)-불(佛)-선(仙) 사상이 혼재하여 나타남.

작품의 구성

발단	이생이 최 씨를 만나 사랑을 나눔.
전개	이생이 부모의 반대를 극복하고 최 씨와 혼인함.
위기	흉건적의 침입으로 최 씨가 죽게 됨.
결정	이생이 최 씨의 환신과 재회하여 행복하게 지냄.
결말	이생과 최 씨가 영원히 이별함.

※ ‘위기~결말’ 부분이 교과서에 수록됨.

핵심 1 주인공의 만남과 이별



핵심 2 ‘최 씨’의 성격 및 가치관

최 씨의 행동	이생을 만나 사랑하게 된 후, 부모의 반대를 극복하고 혼례를 올림.
성격 및 가치관	•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애정관을 지님. • 당시의 봉건적인 사회·문화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파격적인 성격의 인물임.

핵심 3 작품의 전기적(傳奇性) 특성 및 기능

전기적 특성	죽은 최 씨가 이승의 이생과 재회하여 사랑을 나누는 등의 비현실적인 사건이 전개됨.
기능	• 환상적이고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엮어냄. • 만남과 이별을 통해 이야기에 서사적 긴장감을 부여함. • 작품의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부각함. • 죽음을 초월한 주인공의 사랑과 이를 지켜내려는 의지를 부각함.

핵심 4 죽은 최 씨가 이승으로 돌아오는 사건의 의미

죽은 최 씨가 이승으로 돌아옴.
• 이생과 최 씨의 사랑을 다시 성취하기 위한 작가의 의도적인 장치 •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허물고 죽음도 초월하여 두 사람이 사랑을 이루는 모습을 통해 부당한 현실(전쟁)에 대한 저항 의지를 드러냄.

✎ <이생규장전>의 구성

전반부
 • 이생과 최 씨의 사랑과 결혼
 • 현실적 이야기

홍건적의 침입으로 전쟁 중에 최 씨가 죽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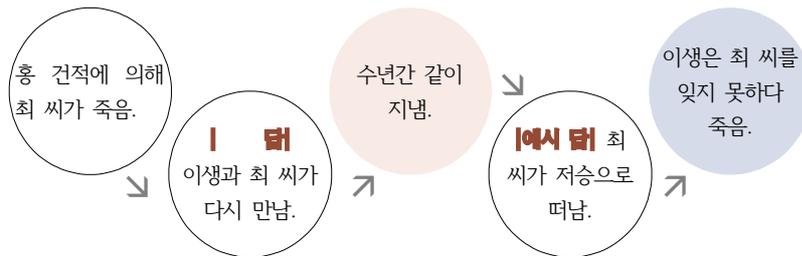
후반부
 • 이생과 죽은 최 씨의 사랑과 이별
 • 비현실적 이야기

✎ 삽입 시의 역할

-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함.
- 사건의 전개 방향을 암시함.
- 주제를 집약적으로 전달함.
- 인물의 심리를 비유적, 함축적으로 표현함.

“이생규장전” 드라마의 삽입 시의 흐름

1. 작품의 주요 사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에 보자.



2. 이 작품에 나타난 비현실적 내용이나 상황을 밑에 보자.

- 죽은 최 씨가 다시 이승에 나타났다.
- 죽은 최 씨와 살아 있는 이생이 만나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 최 씨의 자취가 이생의 눈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3. 이 작품에 나타난 당시 사회-문화적 상황은 어떠했는지 정리에 보자.

배경과 관련된 상황	남녀 간의 애정과 관련된 인식	당시 여성상과 관련된 가치관
신축년(1361년)에 홍건적이 고려의 수도인 개성을 점령함.	남녀 간에는 절개와 믿음을 중요하게 여김.	여성은 집 밖의 일은 잘 모르고 부녀자의 법도만 알며, 수놓기, 바느질 등에 힘쓰며 지냄.

4. 내용에 나타난 최 씨의 성격을 알아보자. 그리고 3에서 정리한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이러한 성격이 갖는 의의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어목

“저는 본디 양가의 딸로서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들어 수놓기와 바느질에 힘 쓰고 시서(詩書)와 인의(仁義)의 방도를 배울 뿐이었습니다. 오로지 규문의 법도만 알았을 뿐 어찌 집 밖의 일을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당신께서 붉은 살구꽃이 편 담장 안을 한 번 엿보신 후 제가 스스로 푸른 바다의 구슬을 바쳤지요.”

최 씨는 ‘제가 스스로 푸른 바다의 구슬을 바쳤’다고 말할 정도로 이생에 대한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며 사랑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인물이다. 여자에게는 규문의 법도만을 익히도록 강요했던 당시 사회에서 최 씨의 진취적인 면모는 유교적 관습에서 벗어난다. 이처럼 인물의 능동적인 성격은 주인공의 사랑을 반대하는 봉건적 사고와 ‘홍건적’이라는 세계의 횡포에 대한 저항을 효과적으로 그려 죽음을 초월한 사랑을 강조하고 자유로운 인간의 삶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5. 다음은 고전 소설 <최척전>의 줄거리이다. <이생규장전>과 비교하면서 감상해 보자.

남원의 가난한 유생 최척은 부친의 친구인 정 상사의 집으로 공부하러 다닌다. 정 상사의 친척이자 과부 심 씨의 딸 옥영은 최척에게 마음이 끌려 시를 써서 보내고, 이들은 곧 사랑에 빠져 약혼을 한다. 그러나 최척이 의병으로 참전하여 혼인 날짜가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심 씨는 옥영을 부잣집에 시집보내려 한다. 하지만 옥영은 최척을 기다리고, 드디어 두 사람은 혼인한다.

이후 정유재란으로 남원이 함락되면서 최척과 옥영, 첫아들 몽석은 뿔뿔이 흩어진다. 옥영은 왜병의 포로로 일본에 잡혀간 후 장사를 돕게 되고, 최척은 중국에서 살게 된다. 여러 해가 지난 뒤 최척은 친구 송우와 함께 상선을 타고 떠돌아다니다 우연히 안남(지금의 베트남)에서 아내 옥영을 만나게 된다. 이들은 중국 항주에 정착하고 둘째 아들 몽선을 낳아 기르며 십여 년간 행복한 생활을 누린다.

몽선이 성장하여 혼례를 올린 이듬해 호족이 침입하여, 최척은 가족과 이별하고 명나라 군사로 출전하였다가 호족의 포로가 된다. 그는 포로수용소에서, 조선에서 출전했다가 역시 호족의 포로가 된 첫아들 몽석을 극적으로 만나게 된다. 두 사람은 함께 수용소를 탈출하여 고향으로 향한다. 한편 옥영은 몽선과 더불어 어려운 고비를 겪으며 고국으로 돌아오고, 가족이 다시 만나 행복하게 살아간다.

	한문 소설, 애정 소설
성격	우연적, 사실적
배경	· 시간: 임진왜란, 정유재란과 그 이후 · 공간: 조선, 중국, 베트남
주제	이산 가족의 고통과 가족애를 통한 재회
특징	① ‘만남 - 이별 - 재회’의 과정이 반복되어 나타남. ② 실제 전쟁을 배경으로 하여 백성들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표현함.

(1) 두 작품의 내용상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자.

- **공통점:** 두 작품 모두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장인물들이 전란으로 이별을 하고 수난을 겪게 되는 점 등이 공통적이다.
- **차이점:** <이생규장전>에서는 이승과 저승의 질서에 따라 이생과 최 씨가 결국 헤어지게 되지만, <최척전>에서는 최척과 옥영이 우여곡절을 거듭한 끝에 다시 만나 행복하게 살게 된다.

(1)에서의 깊이 문학 작품을 다른 작품과 비교하며 감상하였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생각해 보자.

한 편의 문학 작품을 감상한 후 이를 유사한 특성의 다른 작품과 비교하며 감상하면, 작품에 대한 보다 깊이 있고 섬세한 감상이 가능하며, 다양한 텍스트를 경험하게 되어 감상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이생규장전” 원문 읽기 문제 모음

1.

01독 죽은 최 씨가 살아남은 이생을 찾아온 까닭은 무엇일까?

홍건적의 난에 의해 헤어졌던 이생과 다시 만나서 부부의 인연을 계속 맺고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이다.

2.

교과서 63독 이 노래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보자.

삽입된 노래에는 홍건적의 침입으로 죽음을 맞은 최 씨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과 이생과의 영원한 이별을 앞둔 슬픈 마음이 담겨 있다. 따라서 작품에 삽입된 노래는 최 씨의 애달픈 심리를 표현하고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이생규장전” 모음 자료

작가 다른 작품: 김사슴의 <안복사계포기>

이 작품은 <이생규장전>과 함께 김사슴의 <금오신화>에 실린 다섯 편의 소설 중 하나로, 사람과 귀신 간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어 전기성(傳奇性)이 두드러진다. 이 작품을 감상하며 조선 전기에 지어진 한문 소설에 나타나 있는 표현상의 특징 등을 살펴볼 수 있고, 작가가 살던 당대의 현실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간체	한문 소설, 전기 소설	성격	기적, 환상적, 비극적
배경	• 시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 공간: 전라남도 남원의 만복사		
주제	생사를 초월한 사랑		
특징	① 불교적 색채가 강하게 드러남. ② 삽입된 시를 통해 등장인물의 심리를 전달함.		

소재가 유사한 작품: 작자 미상의 <운영전>

이 작품은 17세기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전 소설로, 궁녀 운영과 김 진사의 비극적인 사랑을 그리고 있다. 특히 이 작품은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는데, 유명이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깨어나서 운영과 김 진사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잠들다가 깨어난다는 이중적 구성으로 되어 있다.

간체	한문 소설, 애정 소설, 액자 소설	성격	낭만적, 비극적
배경	• 시간: 조선 초-중기 • 공간: 한양의 수성궁		
주제	신분을 초월한 남녀의 비극적 사랑		
특징	① 액자식 구성(현실 - 꿈 - 현실)을 취함. ② 당시 궁녀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음. ③ 고전 소설의 보편적 주제인 권선징악(勸善懲惡)에서 벗어나 자유연애 사상을 보여 줌.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신축년에 홍건적이 고려의 서울인 개성을 점령하자 임금은 복주(福州)로 피란을 갔다. 홍건적은 집을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고 가축을 잡아먹었다. 백성들은 부부, 친척끼리도 서로를 보호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달아나 숨은 채 각자 자기 살 길을 도모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생도 가족들을 데리고 외진 산골로 숨었는데 도적 한 명이 칼을 빼어 들고 그들의 뒤를 쫓아왔다. 이생은 달아나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최 씨는 도적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도적이 자신을 겁탈하려 하자 최 씨는 크게 꾸짖으며 말하였다.

“호귀(虎鬼)야, 나를 죽여 삼켜 버려라. 차라리 죽어 승냥이와 이리의 배 속에 들어갈지언정 어찌 개돼지 같은 놈의 짝이 되겠느냐.”

도적은 노하여 최 씨를 죽였다. 이생은 거친 들판에 숨어서 겨우 목숨을 보전하다가 얼마 후 도적이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사시던 옛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집은 이미 전쟁 통에 불타 버린 후였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 씨의 집으로 가 보았더니 행랑채만 덩그러니 남아 황량한 가운데 쥐들이 짹짹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이생은 슬픈 마음을 억누를 길이 없어 작은 누각에 올라가서 눈물을 흘리며 길게 탄식할 뿐이었다. 어느새 날이 저물었다. 그는 우두커니 홀로 앉아 지난날을 가만히 떠올려 보았지만 모든 게 한바탕 꿈만 같았다.

이경(二更)쯤 되어 달빛이 희미한 빛을 토하며 들보를 비추었다. 그런데 회랑 끝에서 웬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멀리서부터 들려오더니 차츰 가까워졌다. 발자국 소리가 이생 앞에 이르렀을 때 보니 바로 최 씨였다.

이생은 그녀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너무도 사랑하는 나머지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물었다.

“당신은 어디로 피란하여 목숨을 부지하였소?”

최 씨는 이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저는 본디 양가의 딸로서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들어 수농기와 바느질에 힘쓰고 시서(詩書)와 인의(仁義)의 방도를 배울 뿐이었습니다. 오로지 규문의 법도만 알았을 뿐 어찌 집 밖의 일을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당신께서 붉은 살구꽃이 핀 담장 안을 한 번 엿보신 후 제가 스스로 푸른 바다의 구슬을 바쳤지요. 꽃 앞에서 한 번 웃고는 평생의 은혜를 맺었고, 휘장 안에서 다시 만났을 때에는 은정이 백 년을 넘칠 것 같았지요.

말이 여기에 이르고 보니 슬프고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군요. 장차 평생을 함께하려고 하였는데 뜻밖의 횡액을 만나 구덩이에 툇굴게 될 줄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끝까지 짐승 같은 놈에게 몸을 내맡기지 않고 스스로 진흙탕에서 육신이 찢기는 길을 택하였지요. 그건 천성이 저절로 그렇게 한 것이지 인정으로야 차마 견딜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외진 산골짜기에서 당신과 헤어진 후로 짝을 잃고 홀로 날아가는 새의 신세가 된 것이 너무 한스러웠습니다. 집도 없어

지고, 부모님도 돌아가셨으니 고단한 혼백조차 의지할 곳이 없었지만 절의는 귀중하고 목숨은 가벼우니 쇠잔한 몸뚱이일 망정 치욕을 면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누가 마디마디 끊어져 재처럼 식어 버린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겠습니까? 그저 조각조각 끊어진 썩은 창자만 모아 두었을 뿐,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간과 쓸개는 땅바닥에 버려져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있지요. 가만히 지난날의 즐거움을 헤아려 보기도 하지만 오늘의 근심과 원한만이 마음에 가득 차 버렸습니다.

이제 추연(鄒衍)이 피리를 불어 적막한 골짜기에 봄바람을 일으켰으니 저도 천녀(倩女)의 혼이 이승으로 돌아왔듯이 이곳으로 돌아오렵니다. 봉래산에서 십이 년 만에 만나자는 약속을 이미 단단히 맺었고, 취굴(聚窟)에서 삼생(三生)의 향이 그윽이 풍겨 나오니 그동안 오래 떨어져 있던 정을 되살려서 옛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겠어요. 만약 당신이 아직도 옛 맹세를 잊지 않으셨다면 저는 끝까지 잘해 보고 싶어요. 당신도 허락하시는 거지요?”

- 김시습, '이생규장전'

소담고등학교 (세종)

1. 이생과 최 씨의 재회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란으로 인하여 두 사람은 가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헤어졌다.
- ② 두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약속의 매개물을 통해 재회하게 된다.
- ③ 두 사람은 전란 중에 만난 동포의 도움으로 우연히 만나게 된다.
- ④ 최 씨는 이생과의 두 번째 만남을 통해 이생과의 영원한 이별을 고하고 있다.
- ⑤ 두 사람은 목숨보다 절개를 지키고자 한 최 씨의 선택으로 이별하게 되었다.

소담고등학교 (세종)

2. 윗글에 나타난 전기적인 내용을 찾고 이를 통해 주제와 관련하여 작가가 의도하고자 한 바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십시오.

<조건>

1. 윗글에 나타난 비현실적인 내용만을 쓸 것.
2. 작품의 주제를 언급할 것.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개성에 사는 이생은 어느 봄날 우연히 담 너머로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되고, 여인(최 씨) 역시 이생에게 마음이 끌린다. 편지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결국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 챈 이생의 아버지는 이생을 지방으로 보내고, 최 씨는 상사병을 얻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최 씨의 부모는 간곡한 딸의 청에 따라 이생의 부모를 설득하고 결국 이생과 최 씨는 혼례를 올린다.

신축년에 흥건적이 고려의 서울인 개성을 점령하자 임금은 복주(福州)로 피란을 갔다. 흥건적은 집을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고 가축을 잡아먹었다. 백성들은 부부, 친척끼리도 서로를 보호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달아나 숨은 채 각자 자기 살 길을 도모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생도 가족들을 데리고 외진 산골로 숨었는데 도적 한 명이 칼을 빼어 들고 그들의 뒤를 쫓아왔다. 이생은 달아나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최 씨는 도적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도적이 자신을 겁탈하려 하자 최 씨는 크게 꾸짖으며 말하였다.

㉠“호귀(虎鬼)야, 나를 죽여 삼켜 버려라. 차라리 죽어 승냥이와 이리의 배 속에 들어갈지언정 어찌 개돼지 같은 놈의 짝이 되겠느냐.”

도적은 노하여 최 씨를 죽였다. 이생은 거친 들뜬에 숨어서 겨우 목숨을 보전하다가 얼마 후 도적이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사시던 옛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집은 이미 전쟁 통에 불타 버린 후였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 씨의 집으로 가 보았더니 행랑채만 덩그러니 남아 황량한 가운데 쥐들이 짹짹대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이생은 슬픈 마음을 억누를 길이 없어 작은 누각에 올라가서 눈물을 흘리며 길게 탄식할 뿐이었다. 어느새 날이 저물었다. 그는 우두커니 홀로 앉아 지난날을 가만히 떠올려 보았지만 모든 게 한바탕 꿈만 같았다.

이경(二更)쯤 되어 달빛이 희미한 빛을 토하며 들보를 비추었다. 그런데 회랑 끝에서 웬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멀리서부터 들려오더니 차츰 가까워졌다. 발자국 소리가 이생 앞에 이르렀을 때 보니 바로 최 씨였다.

㉢이생은 그녀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너무도 사랑하는 나머지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물었다.

“당신은 어디로 피란하여 목숨을 부지하였소?”

최 씨는 이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중략 줄거리>

이생은 귀신이 되어 돌아온 최 씨와 함께 제물을 찾아 부모의 유해를 수습하고 살아 있던 때와 마찬가지로 사랑을 나누며 지낸다.

어느 날 저녁 최 씨가 이생에게 말했다.

“세 번이나 좋은 시절을 만났지만, 세상일은 뜻대로 되지 않고 어그러지지만 하네요. 즐거움이 다하기도 전에 갑자기 슬픈 이별이 닥쳐오니 말이에요.”

그러고는 마침내 오열하기 시작하였다. 이생은 깜짝 놀라서 물었다.

“무슨 일로 그러시오?” / 최 씨가 대답하였다.

“저승길의 운수는 피할 수가 없답니다. 하느님께서 저와 당신의 연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저희가 아무런 죄악도 저지르지 않았음을 아시고 이 몸을 환생시켜 당신과 지내며 잠시 시름을 잊게 해 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인간 세상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산사람을 미혹시킬 수는 없답니다.”

최 씨는 시녀를 시켜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루춘(玉樓春)>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면서 이생에게 술을 권하였다.

창과 방패가 눈에 가득한 싸움터

옥이 부서지고 꽃이 흩날리고 원앙도 짝을 잃네.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을 그 누가 묻어 주랴.

피에 젖어 떠도는 영혼 하소연할 곳 없어라.

무산 선녀가 고당에 한 번 내려온 후

깨졌던 거울이 거둬 갈라지니 마음만 쓰러라.

이제 한 번 이별하면 둘 사이 아득하니

하늘과 인간 사이에 소식마저 막히리라.

최 씨는 한 마디씩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물을 삼키느라 곡조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였다.

이생도 슬픔을 견잡지 못하여 말하였다.

“내 차라리 당신과 함께 저세상으로 갈지언정 어찌 무로히 홀로 살아남을 수 있겠소? 지난번 난리를 겪은 후 친척과 종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해가 들뜬에 버려져 있을 때 당신이 아니었다면 누가 부모님을 묻어 드릴 수 있었겠소? 옛 성현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이 살아 계실 때는 예로써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는 예로써 장사 지내야 한다.’라고 했는데 당신의 천성이 효성스럽고 인정이 두터웠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다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요. ㉣당신의 정성에 너무도 감격하지만 한편으로는 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참을 길이 없었소. 부디 그대는 인간 세상에 더 오래 머물다가 백 년 후 나와 함께 흠으로 돌아가시구려.”

최 씨가 대답하였다.

“당신의 목숨은 아직도 한참 더 남아 있지만 저는 이미 귀신의 명부에 이름이 실렸으니 이곳에 더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제가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하며 미련을 두어 운명의 법도를 어기게 된다면 단지 저에게만 죄과가 미치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도 누를 끼치게 될 거예요. 다만 제 유해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어느 날 저녁 최 씨가 이생에게 말했다.
 “㉠세 번이나 좋은 시절을 만났지만, 세상일은 뜻대로 되지 않고 어그러지기만 하네요. 즐거움이 다하기도 전에 갑자기 슬픈 이별이 닥쳐오니 말이에요.”
 그러고는 마침내 오열하기 시작하였다. 이생은 깜짝 놀라서 물었다.
 “무슨 일로 그러시오?”
 최 씨가 대답하였다. / “저승길의 운수는 피할 수가 없답니다. 하느님께서 저와 당신의 연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저희가 아무런 죄악도 저지르지 않았음을 아시고 이 몸을 환생시켜 당신과 지내며 잠시 시름을 잊게 해 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인간 세상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산사람을 미혹시킬 수는 없답니다.”

최 씨는 시녀를 시켜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루춘(玉樓春)>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면서 이생에게 술을 권하였다.

창과 방패가 눈에 가득한 싸움터
 옥이 부서지고 꽃이 흩날리고 원앙도 짝을 잃네.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을 그 누가 묻어 주랴.
 피에 젖어 떠도는 영혼 하소연할 곳 없어라.

[A]

무산 선녀가 고당에 한 번 내려온 후
 깨졌던 거울이 거듭 갈라지니 마음만 쓰러라.
 이제 한 번 이별하면 둘 사이 아득하니
 ㉡하늘과 인간 사이에 소식마저 막히리라.

최 씨는 한 마디씩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물을 삼키느라 곡조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였다.

“내 차라리 당신과 함께 저세상으로 갈지언정 어찌 무로히 홀로 살아남을 수 있겠소? 지난번 난리를 겪은 후 친척과 종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해가 들판에 버려져 있을 때 당신이 아니었다면 누가 부모님을 묻어 드릴 수 있었겠소? 옛 성현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이 살아 계실 때는 예로써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는 예로써 장사 지내야 한다.’라고 했는데 당신의 천성이 효성스럽고 인정이 두터웠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다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요. 당신의 정성에 너무도 감격하지만 한편으로는 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참을 길이 없었소. 부디 그대는 인간 세상에 더 오래 머물다가 백 년 후 나와 함께 흙으로 돌아가시구려.”

최 씨가 대답하였다. / “당신의 목숨은 아직도 한참 더 남아 있지만 저는 이미 귀신의 명부에 이름이 실렸으니 이곳에 더 오래 머물 수가 없답니다. 만약 제가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하며 미련을 두어 운명의 법도를 어기게 된다면 단지 저에게만 죄과가 미치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도 누를 끼치게 될 거예요. 다만 제 유해가 아무 곳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면 그것이나 거두어 비바람과 햇볕 아래 그냥 나뒹굴지 않게 해 주세요.”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눈물만 줄줄 흘렸다.
 “서방님, 부디 몸 건강하세요.” / ㉣말을 마친 최 씨의 자취가 점차 희미해지더니 마침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이생은 그녀의 유골을 거두어 부모님 무덤 곁에 묻어 주었다. 장사를 지낸 뒤 이생도 최 씨와의 추억을 생각하다 병을 얻어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마다 애처로워하며 그들의 절의를 사모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 김시습, 「이생규장전」

원주고등학교 (강원)

6.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의 삽입을 통해 서술 방식의 통일성을 획득한다.
- ② 인물의 내면적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 ③ 시간을 역순행적으로 구성하여 인물의 과거를 드러낸다.
- ④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와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 ⑤ 설화적 기법으로 마무리하여 독자들에게 여운을 느끼게 한다.

원주고등학교 (강원)

7. <보기>는 위 글을 바탕으로 드라마를 제작하기 위한 기획 의도이다. 기획 의도를 살리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3개)

<보기>
 죽은 이와 사랑은 다소 생소한 소재이지만 원작에 최대한 충실하려고 한다. 때로는 비현실적인 요소가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 질 때가 있다. 이생과 최 씨의 사랑이 가벼운 만남에 익숙한 현대의 시청자들에게 삶을 새롭게 인식할 기회를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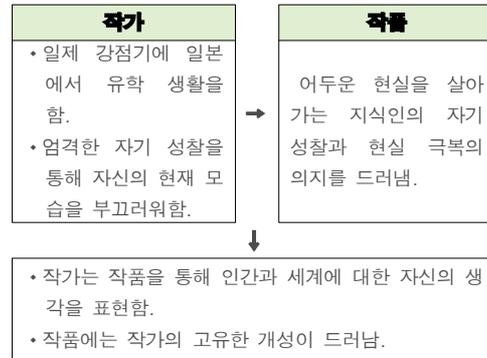
- ① 이생과 최 씨의 사랑을 최대한 강조하되, 비현실적인 요소는 줄이는 것이 좋겠어.
- ② 이생과 최 씨의 만남을 밝고 경쾌하게 묘사하여, 현대 시청자들의 감각과 기호에 맞출 필요가 있겠군.
- ③ 최 씨의 역할을 맡은 배우는 신비하고 기이한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현실을 잊게 해야겠군.
- ④ 이생이 최 씨의 정체를 알면서도 변함없이 그녀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시청자들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소중함을 깨닫게 해야겠군.
- ⑤ 뮤지컬적 요소를 가미해 본문에 삽입된 시는 최 씨가 실제로 노래를 하면서 자신의 현재 심리 상태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게 하면 좋겠어.

“쉽게 씌어진 시” 분석 정리

작품 개관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반성적, 저항적
제지	일본에서의 유학 생활과 시가 쉽게 씌어지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주제	어두운 현실을 살아가는 지식인의 자기 성찰과 현실 극복 의지
특징	① 밝음과 어둠의 이미지를 대립시켜 부정적 현실과 극복 의지를 드러냄. ② 현실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의 대립과 화해를 통해 시상을 전개함.

핵심 2 작가와 작품의 관계



작품의 구성

1연	어두운 시대 현실을 인식함.
2연	시인으로서의 슬픈 운명을 자각함.
3~4연	일상적이고 무기력한 삶을 보냄.
5~6연	현실에서 상실감과 회의를 느낌.
7연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삶에 대해 반성함.
8연	어두운 시대 현실을 재인식함.
9연	현실을 극복하려는 희망적 의지를 드러냄.
10연	두 자아가 화해하고 현실 극복의 의지를 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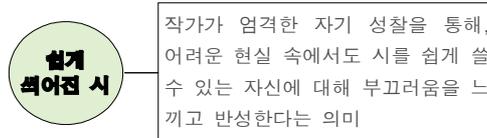
핵심 3 시어와 시구의 의미

발비, 어름	시간적 배경, 자기 성찰의 계기를 마련하는 부정적 현실(일제 강점기)
육필방	시적 화자가 현재 있는 장소, 시적 화자를 억압하는 공간
풍물	현실을 극복해 나가려는 시적 화자의 의지와 희망
시대처럼 울 아꼐	반드시 도래할 희망찬 미래(광복)
악수	현실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의 화해

핵심 1 시적 화자의 경서와 태도 변화



핵심 4 제목 ‘쉽게 씌어진 시’의 의미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

시간적 배경 → 암울한 시대 현실을 상징함.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 어두운 시대 현실을 인식함.

공간적 배경 → 낯설고 구속적인 삶의 공간

시인이란 슬픈 천명(天命)인 줄 알면서도

부정적인 현실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시를 쓸 수밖에 없는 처지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 시인으로서의 슬픈 운명을 자각함.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현실적 자아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남.

보내 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늪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 일상적이고 무기력한 삶을 보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식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를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상실감

□: 현실적 자아,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자아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沈澱)하는 것일까?

▶ 현실에서 상실감과 회의를 느낌.

무기력한 삶의 모습(하강적 이미지)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일제 강점기의 살기 힘든 시대 현실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 부정적인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하는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자신의 모습을 성찰함.

부끄러운 일이다.

▶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삶에 대해 반성함.

‘: 1연의 변조적 반복, 인식의 변화(소극적 → 적극적)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 어두운 시대 현실을 재인식함.

일제에 맞서는 저항 의지, 미래에 대한 희망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부정적 현실

○: 반성을 통해 성숙한 내면적 자아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 현실을 극복하려는 희망적 의지를 드러냄.

희망찬 미래, 조국의 광복

나는 내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 두 자아가 화해하고 현실 극복의 의지를 다짐.

분열된 두 자아의 화해와 화합

“쉽게 씌어진 시” 모티브인 문법 요소

1. 작품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자.

1~4인	5~7인	8~10인
현재 자신의 모습을 인식함.	예시 1 자신의 모습에서 부끄러움을 느낌.	예시 2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발견하고 현실 극복의 의지를 드러냄.

2. 이 작품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어조는 어떠한지 말해 보자.

독백적이고 성찰적인 어조로 말하고 있다.

3. 작가와 작품 간의 관계를 생각하며 다음 활동을 해 보자.

작가와 관련된 맥락을 고려하여 작품을 이해하는 활동이다. 작품에 작용하는 여러 맥락 가운데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 작가에 대해 이해하고 작가의 삶과 문학적 특성이 작품에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작품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작가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거나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감상하면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4. 이 작품에서 시적 화자의 신분이나 처지를 알 수 있는 시구를 찾아보자.

시적 화자의 신분이나 처지를 알 수 있는 시구로는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 ‘보내 주신 학비 봉투’, ‘대학 노트’, ‘높은 교수의 강의’ 등이 있다. 이로 보아 시적 화자가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는 대학생이자 시인임을 알 수 있다.

5. 이 작품의 창작 시기를 고려하여 다음 구절의 의미를 파악해 보자.

09쪽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비록 일제 강점기의 현실이 힘들지만 앞으로 다가올 밝은 미래(광복)를 확신하고 기다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6. 다음은 작가의 성격에 대한 글이다. 이 작품의 제목인 <쉽게 씌어진 시>의 의미는 무엇인지 밑줄 친 부분과 관련지어 써 보자.

외유내강. 동주 형을 아는 분이라면 누구나 그를 이렇게 표현하는 데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는 대인 관계에서 모가 나는 일이 없었고 따라서 적이 없었다. 누구도 그를 지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는 엄격하였다.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변명하는 일에는 너그러웠지만 스스로를 용서하는 일은 없었다.

- , <동주 형의 편모>에서

엄격한 자기 성찰을 통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시를 쉽게 쓸 수 있는 자신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7. ㉠ 현대시 <파랑새> 이고, ㉡는 작가가 <파랑새> 를 창작하게 된 계기를 설명한 글이다. ㉢를 읽고, 이를 참고하여 ㉠에 대한 감상을 말해 보자.

<p>㉠</p> <p>나는 나는 죽어서 파랑새 되어</p> <p>푸른 하늘 푸른 들 날아다니며</p> <p>푸른 노래 푸른 울음 울어 예오리.</p> <p>나는 나는 죽어서 파랑새 되리.</p>	<p>㉡</p> <p>고향 땅 함흥에 돌아왔으나 이 꼴로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 더욱 동리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도저히 밝은 낮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 진종일 밤이 오기를 기다렸다. 사람이 안 다니는 들에서 종일 굶으며 기다려야 했다. 이제는 정말로 <u>나환자</u>가 된 설움이 가슴을 찢는다. 나환자 생활로 입학하는 분함과 서러움에 하루 종일 잔디에서 울었다. 내가 나를 생각해 보아도 내 값이 정말로 한 푼어치도 되지 않는 것 같다. 이제는 인간 폐업령이 내려졌다. 이 원한을 피를 토하며 통곡하였다. 몇 백 번 고쳐 죽어도 자욱자욱 피맺힌 서러움과 뉘우침이 가득 찬 나환자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밤이 어두워진다. 모든 것을 검게 가려 주는 밤이 온다. 나는 여기서 인간의 자유와 이상과 동경을 상징하는 노래로 <파랑새>라는 시를 읊으며 인간의 행복을 빌었다.</p> <p style="text-align: right;">- 한하운, 《나의 슬픈 반생기》에서</p>
--	--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민요적, 서정적, 애상적
제지	파랑새
주제	자유로운 삶에 대한 소망
특징	① 민요조의 3음보 율격과 선명한 색채 심상을 드러냄. ② 반복과 수미 상관의 구조를 통해 자유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강조함.

시적 화자가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클지 짐작해 보게 되며, 현실에서 극복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기에 사후에라도 자유와 이상을 누리길 갈망해 보는 시적 화자의 절실함이 잘 느껴진다.

- ★ 교과서 문제는 시험에 그대로 출제될 수 있으니 필히 암기할 것!
- ★ 답이 제거된 버전은 총만국 사이트 자료실에서 다운 가능!

“쉽게 씌어진 시” 포용 자료

다른 작품: 운동주의 <참회록>

이 작품은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며 역사 속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 노력했던 운동주의 시이다. <쉽게 씌어진 시>와 함께 감상하며 시적 화자가 자신을 성찰하는 태도를 파악하고,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 운동주가 지향했던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파란늑이 낀 구리 거울 속에 / 내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나의 참회(懺悔)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 만(滿) 이십사 년 일 개월을 /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 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懺悔錄)을 써야 한다.
- 그 때 그 젊은 나이에 / 왜그런 부끄러운 고백(告白)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 보자.

그러면어느 운석(隕石)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사람의 뒷모양이 / 거울속에 나타나온다.

-운동주, '참회록'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상징적, 고백적, 성찰적
제재	구리거울, 부끄러운 자신의 삶		
주제	자아 성찰을 통한 참회와 현실 극복의 의지		
특징	① '과거 - 현재 - 미래'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② 구리거울을 매개로 치열한 자기반성의 과정을 보여 줌. ③ 상징적인 시어를 통해 일제 강점기의 현실 상황과 성찰한 내용을 드러냄.		

시대적 배경이 유사한 작품: 이육사의 <절정>

이 작품은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절정에 이른 상태에서 이를 정신적으로 극복하려는 의지와 신념을 노래한 시이다.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쉽게 씌어진 시>에 나타난 작가의 현실 인식 태도와 비교하며 감상할 수 있다.

매운 계절(季節)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北方)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高原)
서릿발 칼날 진 그 위에 서다.

어데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가 보다.

- 이육사, '절정(絶頂)'

2-(2) 쉽게 씌어진 시 [이론편]

	자유시, 서정시	성격	지사적, 상징적, 의지적
제지	현실의 극한 상황		
주제	극한 상황에 대한 초극 의지		
특징	① 역설을 통해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강조함. ② 강렬한 상징어와 남성적 어조로 단호하고 강인한 의지를 표출함. ③ 한시의 구성 방식인 '기 - 승 - 전 - 결'의 4단 구성을 취함. ④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시적인 긴박감을 더하고 있음.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天命)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 붙여.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 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높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를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沈殿)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을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약수.

 -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소담고등학교 (세종)

1.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시간적 배경이자 암울한 시대 현실을 상징하며 자기 성찰의 계기를 마련한다.
- ② ㉡ : 낮설고 시적 화자를 억압하는 공간적 배경이다.
- ③ ㉢ :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일제에 맞서 저항하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 ④ ㉤ : 절망적인 상황에서 꿈꾸는 조국의 불확실한 광복을 나타낸다.
- ⑤ ㉥ : 분열된 현실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의 화합을 의미한다.

소담고등학교 (세종)

2. <보기>를 참고하여 ㉦에 담긴 의미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보기>

이 작품은 시인 윤동주가 일본에 유학 중이던 1942년에 쓴 작품으로, 윤동주는 평소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이었으며 나라를 잃은 시기에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살아가던 시인의 고뇌를 반영한 것이다.

<조건>

1. 시적 화자의 어조를 포함할 것.
2. 7연까지의 현실 상황에 대한 시적 화자의 대응 태도를 포함할 것.

동탄고등학교 (경기)

3. 이 작품이 창작된 시대배경을 고려할 때, 작가가 '쉽게 씌어진 시'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조건>

- 창작된 시대배경을 반드시 언급할 것.
- 작가와 시적 화자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후, 시를 쓸 때 작가의 현실 대응 태도와 심정을 서술할 것.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
 옥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天命)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 붙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 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를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沈殿)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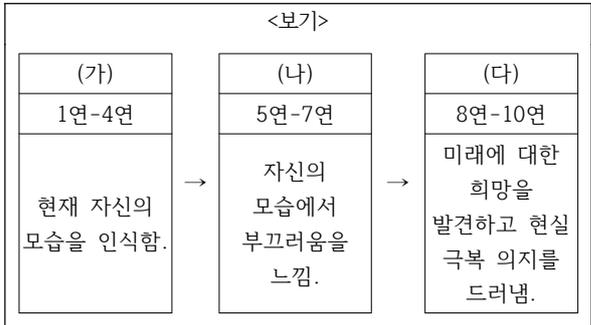
 옥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을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약속.
 -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화흥고등학교 (경기)

4. <보기>의 구조에 따른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의 '옥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를 통해 시적화자가 현실에 만족하며 안주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겠군.

- ② (나)에서 '부끄러운 일이다.'의 이유는 (가)의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군.
- ③ (다)의 '최후의 나'와 (나)의 '홀로 침전하는' 나는 현실적 반성을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발견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어.
- ④ (가)에서의 현실이 (나)에서도 반복적으로 변주되어 표현되어 있으며 이러한 현실에 아무런 저항도 못하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나는 무엇 바라'로 표현되고 있어.
- ⑤ (가)의 '밤비'와 (다)의 '등불'은 현재의 암울한 현실이지만 (다)에서의 화자는 '등불을 밝혀 어둠'을 몰아내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군.

화흥고등학교 (경기)

5. 밑줄 친 대상의 표현방법이 ㉠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 ① 모든 산맥들이 / 바다를 연모(戀慕)해 휘달릴 때도 /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 이육사, '광야' -
- ② 어루만지듯 / 당신 / 숨결 / 이마에 다사하면 // 내 사랑은 아지랑이 / 춘삼월(春三月) 아지랑이
- 이영도, '아지랑이' -
- ③ 하늘에는 성군 별 /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자봉
- 정지용, '향수' -
- ④ 포수는 한 덩이 낚으로 /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 매양 쏘는 것은 /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 박남수, '새1' -
- ⑤ 동짓달에 치자 꽃이 피는 신방에서 신혼일기를 쓴다 없는 것이 많아 더욱 따뜻한 아랫목은 평강 공주의 꽃밭 색색의 꽃씨를 모으던 흰 봉투 한 무더기
- 박라연, '서울에 사는 평강 공주' -

화흥고등학교 (경기)

6. ㉓, ㉔의 함축적 의미를 쓰고, <보기>의 시에서 ㉓, ㉔와 유사한 의미의 시구를 찾아 쓰시오.

<보기>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白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어둠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 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魂)이 우는 것이냐?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세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기 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 윤동주, '또 다른 고향' -

- (1) ㉓의 함축적 의미를 쓰시오.
- (2) ㉓의 함축적 의미와 유사한 시구를 쓰시오.
- (3) ㉔의 함축적 의미를 쓰시오.
- (4) ㉔의 함축적 의미와 유사한 시구를 쓰시오.

광주고등학교 (광주)

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밝음과 어둠의 시각적 이미지를 대립시키고 있다.
- ② 냉소적 태도로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 ③ 일부 시행을 명사로 끝을 맺어 시적 여운을 주고 있다.
- ④ 화자의 내면을 고백하는 어조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상징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모락고등학교 (경기)

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적 화자는 독백적이고 성찰적인 어조로 말하고 있다.
- ② 작품을 작가의 맥락을 고려하여 이해하면 감상의 효과가 더욱 높아진다.
- ③ 소극적이고 부끄러운 시적 화자의 태도가 적극적인 의지로의 변화를 보인다.
- ④ 하강과 상승의 대립적인 심상(이미지)를 사용하여 전통적 가치의 추구를 보여주고 있다.
- ⑤ 현실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의 대립과 화해를 통해 현실 극복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pt005pt (카톡 ID)
내용 질문, 오류 신고

“스노우맨” 분석 정리

작품 기법

갈래	현대 소설, 단편 소설
성격	현실 비판적
배경	• 시간: 현대 / • 공간: 대도시의 아파트와 거리
주제	인간성을 상실한 채 기계적인 노동을 강요하는 현대인의 모습과 경쟁 사회에 대한 비판
특징	① 기발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과장적으로 상황을 설정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② 등장인물을 ‘대리’, ‘과장’, ‘부장’ 등 회사의 직급으로 제시하여, 서열 중심의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나타냄. ③ 여운을 남기는 방식으로 작품의 결말을 제시하여 비판적 인식을 극대화함.

작품의 구성

발단	새해 첫 출근 날 눈이 너무 많이 쌓인 것을 발견하고 남자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기로 함.
전개	남자는 출근에 대한 상사의 압박에 불안감을 느끼다 결국 눈을 파헤치며 출근길에 나섬.
위기	회사를 향해 나아가면서 쌓인 눈을 치우다 남자는 배고픔을 느끼고 짜장면을 배달시켜 먹음.
결정	계속 눈을 파헤치던 중 휴대 전화 벨 소리를 듣게 되고,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삼집을 하다가 사람을 발견함.
결말	남자는 눈에 파묻힌 사람이 유 대리임을 알게 되고, 점차 지쳐가던 남자는 유 대리 옆에서 서서히 잠이 들.

※ 교과서에 수록된 부분은 위기~결말 부분임.

핵심 1 주인공의 만남과 이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근을 해야 하는 주인공에게 ‘눈’은 장애물이자 시련이 됨. 주인공은 출근에 대한 상사의 압박에 불안감을 느끼다가 결국 ‘눈’을 파헤치며 출근하기로 함. 		
↓		
<table border="1"> <tr> <td>‘눈’</td> <td>현대인들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극복해야 하는 압박감과 삶의 부담감을 의미함.</td> </tr> </table>	‘눈’	현대인들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극복해야 하는 압박감과 삶의 부담감을 의미함.
‘눈’	현대인들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극복해야 하는 압박감과 삶의 부담감을 의미함.	

핵심 2 등장인물의 상징성

남자	유 대리	과장
눈을 파면서 회사에 출근하려다가 중간에 지쳐서 멈춤.	눈을 파며 회사로 가는 도중 눈에 파묻힘.	‘남자’에게 회사에 빨리 출근하라며 재촉함.
↓	↓	↓
경쟁 체제에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인물	타인과의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노력하고 인정도 받았으나, 결국 도태되는 인물	남자와 유 대리의 직장 상사로, 남자에게 일상의 압박을 주는 인물

핵심 3 제목 ‘스노우맨’의 의미

눈사람(스노우맨)	남자
눈 속에서 웃는 얼굴을 하고 있음.	경쟁 사회를 살며 별다른 불만 없이 적응하며 살고 있음.
↓	
‘스노우맨’의 의미	극심한 경쟁 사회 속에서 기계적인 노동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현대인을 상징함.

핵심 4 소재의 역할

풍극적 스티키	비현실적인 듯한 사건이 전개되는 계기가 됨.
안건모의 ‘신속 배달’ 문구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신속한 일처리를 요구하는 현대 사회의 속성을 나타냄.
푸른 함장	희극적인 분위기를 조성함.
검붉은색의 실크 넥타이	눈 속에 파묻힌 채 발견된 유 대리의 상황을 나타내며, 작품의 비극성을 강조함.

눈을 파내는 행위의 의미

엄청나게 많은 눈이 내린 상황에서도 빨리 출근하라는 말을 듣고 눈을 파내며 회사로 출근함.



현대인들이 느끼는 삶의 무게나 장애물, 시련, 현실의 부담감 등을 상징함.

'유 대리'의 성격(교과서에 수록되지 않은 앞부분에 제시됨.)

- 초고속으로 승진한 유능한 인재임.
- 제2사업부의 유력한 과장 승진 후보임.
- 일밖에 모르는 유형으로 회사 내에서 평판이 나쁘지 않음.
- 회사에서는 마치 컴퓨터와 한 세트처럼 움직임 없이 일을 함.

남자와 배달원의 공통점

남자	폭설에도 회사에 가기 위해 힘겹게 눈을 파헤치며 출근을 해야 함.
배달원	"눈이 와도 먹고는 살아야죠."라는 말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배달을 해야 함.



생계유지를 위해 힘들게 살아가는 현대인을 상징함.

남자의 성격(교과서에 수록되지 않은 앞부분에 제시됨.)

-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인정받지 못할.
- 소심하고 자신감이 부족해 경쟁에서 자주 밀려남.
- 소극적인 현대인의 모습을 대변함.

“스노우맨”의 핵심 문장 분석

1. 작품에 제시된 ‘눈’의 상징적 의미를 살펴 보자.

회사에 출근해야만 하는 남자에게 ‘눈’은 시련의 대상이고, 남자는 경쟁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눈을 파헤친다. 따라서 ‘눈’은 현대인들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극복해야만 하는 압박, 삶의 부담감 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2. ‘남자’, ‘유 대리’, ‘과장’이 상징하는 인물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자.

	유 대리	과장
눈을 파면서 회사에 출근하려고 하지만 중간에 자처해서 멈춘다.	‘남자’에게 회사에 빨리 출근하라고 재촉한다.	눈을 파며 회사로 가는 도중 눈에 파묻힌다.
→ 경쟁 체제에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인물	→ 이시 태 자신의 모습에서 부끄러움을 느낌.	→ 이시 태 일상에서 압박을 주는 인물

3. 다음 내용을 참조하여 이 작품의 제목인 <스노우맨>은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해 보자.

78쪽

맞은편에 불 꺼진 편의점이 있었다. 편의점 간판을 보자 온장고에 든 따뜻한 캔 커피가 마시고 싶어졌다. 얼마 전까지 일상이었던 것들이 지금은 손이 닿지 않는 저 눈 밑에 파묻혀 버렸다. 누가 만들어 놓았는지 편의점 앞에는 남자의 키만 한 눈사람이 서 있었다. 동그란 눈과 웃는 입 모양을 한 눈사람이었다. 그 웃는 얼굴을 보고 남자는 잠시 멈춰 섰다. 눈이 재앙이 되고 눈 때문에 일상이 무너진 곳에 서 있는, 웃는 얼굴의 눈사람은 김새는 농담 같았다. 남자는 자신도 모르게 그 입 모양을 흉내 냈다. 말라붙어 있던 입술이 툭 터져서 피가 짙은 새어 나왔다.

폭설로 세상이 마비된 상황에서 웃고 있는 눈사람과 웃는 입 모양을 따라 하다 입술이 터지고 피가 나는 남자의 모습을 통해 눈사람의 웃음은 고된 삶에 대한 냉소나 조소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스노우맨(눈사람)’은 힘든 현실에서도 억지웃음을 지으며 살아야만 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상징한다. 또한, 출근을 위해 눈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남자를 ‘스노우맨’이라 할 때 이 작품의 제목은 극심한 경쟁 사회 속에서 기계적인 노동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다음 자료와 관련된 내용이 이 작품에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 찾아보자. 그리고 주제적인 관점에서 이 작품의 주제는 무엇인지 살펴 보자.

디스토피아(dystopia): 현대 사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허구로 그려 냄으로써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문학 작품. 또는 그 사상. ‘역(逆)유토피아’라고도 함.

이 작품에 나오는 사회는 이상이나 행복을 추구하는 공간이라기보다, 주인공으로 하여금 비정상적이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공간으로 형상화되어 디스토피아의 한 단면을 보여 주고 있다. 이로 볼 때 이 작품의 주제는 하나의 기계가 되어 인간성을 상실한 채 노동을 강요당하는 현대인의 모습과 경쟁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스노우맨” **문법** **양면** **문제** **모음**

1.

70쪽 '중국집 스티커'가 하는 기능은 무엇일까?

남자가 아침과 점심도 거른 채 샵집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폭설이 내린 상황에서도 짜장면을 배달시키는 계기가 된다.

2.

교과서 77쪽 남자가 한동안 멍하게 서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엄청나게 많은 눈이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남자는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배달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중국집에서는 아무일도 없다는 듯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주문을 받자 당황한다.

3.

교과서 78쪽 남자가 몰래카메라를 찍고 있다고 의심한 까닭은 무엇일까?

몰래카메라는 촬영을 당하는 사람이 촬영을 당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남자는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하자 인위적으로 연출된 상황이 아닐까 의심한 것이다.

4.

교과서 79쪽 음악 소리는 어디에서 나는 것일까?

음악 소리는 눈에 파묻혀 있는 유 대리의 휴대 전화에서 나는 벨 소리이다.

5.

교과서 81쪽 눈 속에 묻힌 사람이 유 대리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남자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유 대리의 죽음으로 남자는 놀람과 동시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것이며 자신도 머지않아 눈 속의 화석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두려움과 괴로움도 느꼈을 것이다.

“스노우맨” **모형** **자료**

작가 다른 작품: 서유미의 <꽃이 한 겹>

가족과 연애, 그리고 결혼이라는 주제를 30대 여성의 다양한 시선으로 그린 소설이다. 경쟁과 소비라는 현실적 조건 때문에 주변 인물로 전락하는 모습을 경쾌하면서도 진지하게 성찰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갈래	현대 소설, 장편 소설	성격	사실적, 현실 비판적
주제	불안하고 어두운 사회를 살아가는 30대 여성의 일과 사랑		
특징	등장인물의 삶을 사실적으로 제시하여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 냄.		

포인팅 방법이 유사한 작품: 조지 오웰의 <1984>

이 작품은 전체주의적 체제에 의해 지배되는 가공의 미래 사회를 제시하고, 그 체제하에서 자행되는 역사와 기억의 집단적인 왜곡, 개인의 존엄성과 자의식의 파괴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서술하고 있다.

갈래	현대 소설, 장편 소설, 미래 소설	성격	비판적, 비관적
주제	극단적인 전체주의 사회에서 붕괴되는 개인의 존엄성		
특징	가상의 미래 사회를 설정하여 전체주의적 지배 체제하에서 붕괴되는 개인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함.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철가방을 내려놓고 안전모를 벗은 배달원은 뜻밖에도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이였다. 눈 속을 뚫고 오느라 어깨와 신발이 눈투성이였다.

“먹고 그릇은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대단하시네요. 이런 날까지 배달을 하시고…….”

“눈이 와도 먹고는 살아야죠.”

배달원은 그릇을 건네자마자 다시 안전모를 쓰고는 바쁘게 걸어갔다. 짜장면 위에 쿠폰 한 장이 단정하게 놓여 있었다.

손이 얼어서 젓가락은 짹짹으로 쪼개졌다. 짜장의 고소한 냄새와 일회용 용기의 따뜻함은 너무 생생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이었다. 젓가락을 쥐고 짜장면을 비비면서 남자는 코를 훌쩍거리었다. 엉거주춤 하게 서서 짜장면을 먹는 동안 남자는 세상이 자신을 상대로 몰래카메라를 찍고 있는게 아닌가 의심했다. 자신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다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보여 줄 법한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즐기기 위해서. 정말 그런 거라면 남자는 지금 자신이 그들의 기대에 충분히 부합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줄줄 흐르는 콧물을 손등으로 닦으면서 젓가락질을 했고 그릇까지 먹어 치울 기세로 허겁지겁하다 젓가락을 한 짹 떨어뜨리기까지 했으니까. 그걸 찾으려고 눈 속을 파헤쳤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남은 짜장면은 젓가락 한 짹으로 굵어 먹었다. 그래도 양념까지 깨끗하게 비웠다. 부끄러움이나 자괴감 같은 걸 느낄 겨를도 없었다.

회사까지의 거리는 이제 삼 분의 일쯤 남아 있었다. 남자는 과장의 문자와 부장의 전화를 한 번씩 받지 않았다.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유로 아내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남자는 그저 파고 걸었다. 설 때는 허리를 펴고 목을 좌우로 돌리면서 거리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전화는 받지 않았지만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은 어느 때보다 간절했다.

맞은편에 불 꺼진 편의점이 있었다. 편의점 간판을 보자 온장고에든 따뜻한 캔 커피가 마시고 싶어졌다. 얼마 전까지 일상이었던 것들이 지금은 손이 닿지 않는 저 눈 밑에 파묻혀 버렸다. 누가 만들어 놓았는지 편의점 앞에는 남자의 키만 한 눈사람이 서 있었다. 동그란 눈과 웃는 입 모양을 한 눈사람이었다. 그 웃는 얼굴을 보고 남자는 잠시 멈춰 섰다. 눈이 재앙이 되고 눈 때문에 일상이 무너진 곳에 서 있는, 웃는 얼굴의 눈사람은 김새는 농담 같았다. 남자는 자신도 모르게 그 입 모양을 흉내 냈다. 말라붙어 있던 입술이 툭 터져서 피가 짙은 새어 나왔다.

- 서유미, ‘스노우맨’

소담고등학교 (세종)

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장’은 ‘남자’에게 직장의 압박을 주는 인물로 연락을 피하고 싶은 존재이다.
- ② ‘배달원’과 ‘남자’는 생계유지를 위해 힘들게 살아가는 극한 상황에 놓여 있다.
- ③ ‘남자’에게 온장고에 든 따뜻한 캔 커피는 온기가 있는 진정한 인간적 소통을 의미한다.
- ④ ‘남자’는 ‘배달원’의 어색한 표정과 수상한 중국집 스티커를 보고 몰래카메라를 찍고 있다고 의심했다.
- ⑤ ‘눈사람’은 경쟁 사회에서 억지웃음을 지으며 도태되지 않기 위해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상징한다.

총력만능국어

www.chongmangug.co.kr

기본 문제
오류 체크
자습서 파일
시험 대비 자료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앞부분 줄거리] 새해 첫 출근 날, 회사에 다니는 주인공 '남자'는 밤새 내린 눈이 허리를 넘어설 만큼 쌓여 출근할 수 없게 된다. 초조함 속에서 하루를 더 보낸 남자는 결국 눈을 파헤치며 회사로 향하지만 금세 지쳐 버린다. 상사의 압박에 불안감을 느끼던 남자는 우수 사원인 유 대리 역시 출근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유 대리에게 전화해 보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빨리 안 오고 뭐 해. ㉠과장의 문자가 도착했다. 어느새 두 시였다. ㉡남자는 샴을 쥐고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눈을 치우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 하지만 그만큼 빨리 지쳤다. 눈 속에 앉아서 쉬고 있으면 드러누워서 눈을 붙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그 순간에는 눈이 딱딱하고 차갑게 느껴지지 않고 그저 공원에 있는 나무 벤치 같았다. 심지어 숨이붙처럼 포근하게 느껴져서 안으로 한없이 파고들어가고 싶어지기까지 했다. 남자는 쭉그리고 앉아서 꾸벅꾸벅 졸다가 한기 때문에 경기가듯 깨어났다.

(나) 그때 오른쪽 골목 끝에서 안전모를 쓴 사람이 나타났다. 그 사람은 빠른 속도로 눈을 파내면서 걸어왔다. 그 사람이 샴으로 파내는 것은 언 눈이 아니라 가볍고 보드라운 밀가루인 것 같았다. 노를 젓는 것처럼 몸의 움직임이 유연하고 리듬감이 넘쳤다. 덕분에 남자와의 거리는 금세 가까워졌다. 안전모에는 ㉢'신속 배달'이라고 쓰여 있었다. 안전모를 쓴 ㉣배달원이 남자를 보곤 오른팔을 번쩍 들었다. 거짓말 같은 상황에 남자는 눈만 깜빡거렸다. 안전모에 쓰인 문구 그대로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이었다.

철가방을 내려놓고 안전모를 벗은 배달원은 뜻밖에도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이었다. 눈 속을 뚫고 오느라 어깨와 신발이 눈투성이였다.

“먹고 그릇은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대단하시네요. 이런 날까지 배달을 하시고…….”

“눈이 와도 먹고는 살아야죠.”

배달원은 그릇을 건네자마자 다시 안전모를 쓰고는 바쁘게 걸어갔다. 짜장면 위에 쿠폰 한 장이 단정하게 놓여 있었다.

(다) 맞은편에 ㉤불 꺼진 편의점이 있었다. 편의점 간판을 보자 온장고에 든 따뜻한 캔 커피가 마시고 싶어 졌다. 얼마 전까지 일상이었던 것들이 지금은 손이 닿지 않는 저 눈 밑에 파묻혀버렸다. 누가 만들어 놓았는지 편의점 앞에는 남자의 키만 한 눈사람이 서 있었다. 동그란 눈과 웃는 입 모양을 한 눈사람이었다. 그 웃는 얼굴을 보고 남자는 잠시 멈춰섰다. 눈이 재앙이 되고 눈 때문에 일상이 무너지는 곳에 서 있는, ㉥웃는 얼굴의 눈사람은 김새는 농담 같았다. 남자는 자신도 모르게 그 입모양을 흉내 냈다. 말라붙어 있던 입술이 툭 터져서 피가 짙골 새어나왔다.

(라) 눈 속에서 화석이 된 사람은 집에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던 ㉦유 대리였다. 이봐. 남자는 유 대리의 몸을 흔들었다. 턱에서 땀이 툭 떨어졌다. 일어나. 휴대폰에서 다시 익숙한 멜로디의 노래가 흘러 나왔다. “이봐!” 유 대리를 부르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 대리의 전화기를 주워 귀에 댔지만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기, 눈 속에, 유 대리가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고 남자의 입안에서 딱딱하게 굳었다.

해가 기울고 주위는 어느새 어둑어둑해졌다. 이대로 한 시간 정도만 파고 가면 회사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남자는 회사 쪽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자신이 파고 온 길을 돌아보았다. 앞으로 나아가기에도 다시 돌아가기에도 만만치 않은 거리였다. 게다가 남자는 너무 지쳐 있었다. 그는 유 대리의 옆에 쭉그리고 앉아서 숨을 골랐다. 졸음이 밀려왔지만 졸지 않으려고 눈을 부릅떴다. 눈 더미는 딱딱하거나 차갑게 느껴지지 않고 그저 공원에 있는 나무 벤치 같았다. 시야가 구겨진 종이처럼 뭉개지고 있었다.

영동일고등학교 (서울)

2. ㉠ ~ ㉦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남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소재
- ② ㉡ : 배달원이 평상시처럼 행동해야 함을 드러내는 소재
- ③ ㉢ : 남자에게 삶에 대한 의지를 회복시켜주는 소재
- ④ ㉣ : 힘든 현실에서도 억지웃음을 지어야 하는 현대인의 처지를 대변하는 소재
- ⑤ ㉤ : 남자가 살아남기 위해 버텨온 삶의 부담감과 고통을 상징하는 소재

영동일고등학교 (서울)

3. ㉥ ~ ㉦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는 ㉦, ㉣와 달리 인간관계의 단절로 인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 ② ㉥는 ㉡, ㉣와 달리 인간관계의 진정한 소통을 이루어내고 있다.
- ③ ㉡와 ㉥는 모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노동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 ④ ㉥와 ㉣는 모두 폭설이 내린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음을 알 수 있다.
- ⑤ ㉡, ㉥, ㉣는 모두 극심한 경쟁 사회에서 도태된 인물들을 상징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해가 빠르게 기울고 있었다. 몸은 추운데 남자의 얼굴은 땀 범벅이 되었다. 흘러내리는 땀을 닦으며 ㉠남자는 조심스럽게 눈을 치웠다. ㉡고대 유물을 발굴하는 고고학자처럼 손이 떨렸다. 눈을 쓸어내자 어깨와 목, 안경을 쓴 얼굴이 차례로 나타났다. 혹시라도 맥박이 뛰는지 확인하려던 남자가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눈 속에서 화석이 된 사람은 집에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던 ㉢유 대리였다. 이봐. 남자는 유 대리의 몸을 흔들었다. 턱에서 땀이 툭 떨어졌다. 일어나. ㉣휴대 전화에서 다시 익숙한 멜로디의 노래가 흘러 나왔다. “이봐!” 유 대리를 부르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 대리의 전화를 주워 귀에 댔지만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기, 눈 속에, 유대리가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고 남자의 입안에서 딱딱하게 굳었다.

해가 기울고 주위는 어느새 어둑어둑해졌다. 이대로 한 시간 정도만 파고 가면 회사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남자는 회사 쪽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자신이 파고 온 길을 돌아보았다. ㉤앞으로 나아가기에도 다시 돌아가기에도 만만치 않은 거리였다. 게다가 남자는 너무 지쳐 있었다. 그는 유 대리의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숨을 골랐다. 졸음이 밀려왔지만 졸지 않으려고 눈을 부릅떴다. 눈 더미는 딱딱하거나 차갑게 느껴지지 않고 그저 공원에 있는 나무 벤치 같았다. 시야가 구겨진 종이처럼 뭉개지고 있었다.

- 서유미, ‘스노우맨’

삼일여자고등학교 (울산)

4. 위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장된 상황을 설정하며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②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따뜻한 동료애를 잃지 않으려는 직장인들의 모습이 드러난다.
- ③ 인간성을 상실한 현대인의 기계적인 노동과 경쟁사회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여운을 남기는 방식으로 작품의 결말을 제시하여 비판적 인식을 극대화하고 있다.
- ⑤ 등장인물을 ‘대리’, ‘과장’, ‘부장’ 등 회사의 직급으로 제시하여, 서열 중심의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삼일여자고등학교 (울산)

5. ㉠ ~ ㉤에 대한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경쟁 체제에서 살아남으려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인물이다.
- ② ㉡ : 눈 속에 묻힌 사람의 신원과 그의 생사를 알기 직전의 불안감이 드러난다.
- ③ ㉢ :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노력하고 인정도 받았으나, 결국 도태되는 인물이다.
- ④ ㉣ : 유 대리 역시 출근을 재촉 받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 ⑤ ㉤ :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로 절치부심(切齒腐心)의 상황이라 할 수 있다.

pt005pt (카톡 ID)
내용 질문, 오류 신고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빨리 안 오고 뭐 해. 과장의 문자가 도착했다. 어느새 두 시였다. 남자는 샵을 쥐고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눈을 치우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 하지만 그만큼 빨리 지쳤다. 눈 속에 앉아서 쉬고 있으면 드러누워서 눈을 붙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그 순간에는 눈이 딱딱하고 차갑게 느껴지지 않고 그저 공원에 있는 나무 벤치 같았다. 심지어 숨이불처럼 포근하게 느껴져서 안으로 한없이 파고들어가고 싶어지기까지 했다.

(나)
 남자의 샵 끝에 폐지 묶음이 걸렸다. 얼어붙은 종이 문치는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샵으로 떠내는데 그 사이에 들어있던 ㉡중국집 스티커가 남자의 구두 위에 툭 떨어졌다. 손바닥만한 광고지에는 짜장면과 짬뽕, 볶음밥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다. 하얀 눈 위에서 그 까맣고 빨간 색상은 너무나 선명했다. 남자는 자신이 아침 점심도 거른 채 샵질을 했다는 걸 깨달았다. 머릿속에서 짜장면과 짬뽕의 냄새가 천천히 피어올랐다. 그건 아주 먼 옛날에 먹었던 것처럼 아득하고 그리운 맛이였다. 입안에 따뜻한 침이 고였다. 짜장면 곱빼기 한 그릇만 먹고 나면 회사까지 갈 힘이 생길 것 같았다. 다 먹고살 자고 하는 일 아닌 가. 남자는 흘린 듯 ㉢현대 전화를 꺼냈다.

(다)
 “대단하시네요. 이런 날까지 배달을 하시고…….”
 “눈이 와도 먹고는 살아야죠.”
 배달원은 그릇을 건네자마자 다시 안전모를 쓰고는 바쁘게 걸어갔다. 짜장면 위에 ㉣쿠폰 한 장이 단정하게 놓여 있었다.
 손이 얼어서 젓가락은 짹짹으로 쪼개졌다. 짜장의 고소한 냄새와 일회용 용기의 따뜻함은 너무 생생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이었다. 젓가락을 쥐고 짜장면을 비비면서 남자는 코를 훌쩍거리었다. 엉거주춤 하게 서서 짜장면을 먹는 동안 남자는 세상이 자신을 상대로 몰래카메라를 찍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했다.

(라)
 남자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샵과 손으로 눈을 파냈다. 판박이 스티커를 천천히 벗겨낼 때처럼 눈 속에서 검은색 구두와 발, 모직으로 된 양복바지가 차례대로 모습을 드러냈다. 남자는 코를 훌쩍거리면서 언 손으로 조심스럽게 눈을 파헤쳤다. 입에서는 입김이 설 새 없이 쏟아져 나왔다. 양복 차림의 사람은 눈의 중간쯤에 화석처럼 묻혀 있었다. 양복 재킷과 와이셔츠는 주름을 그대로 간직한 채 얼어붙었고 ㉤검붉은색의 실크 넥타이는 오래전에 흘린 피처럼 굳어 있었다. 양손 다 눈을 그러쥐고 있어서 손가락은 보이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몸을 동글게 말고 있는 모습이지만 상반신의 일부는 아직도 눈 속에 묻혀 있었다. 쌓인 눈의 두께로 봐서는 그가 쓰러진 뒤에도 눈이 계속 내렸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마)

해가 빠르게 기울고 있었다. 몸은 추운데 남자의 얼굴은 땀 범벅이 되었다. 흘러내리는 땀을 닦으며 남자는 조심스럽게 눈을 치웠다. 고대유물을 발굴하는 고고학자처럼 손이 떨렸다. 눈을 쓸어내자 어깨와 목, 안경을 쓴 얼굴이 차례로 나타났다. 혹시라도 맥박이 뛰는지 확인하려던 남자가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눈 속에서 화석이 된 사람은 집에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던 유 대리였다.

- 서유미, 「스노우 맨」 -

인천고잔고등학교 (인천)

6. (가) ~ (마)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 : 폭설이 온 날 남자는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눈을 치우다가 잠이 든다.
- ② (나) : 눈을 치우던 도중 허기를 느낀 남자는 짜장면을 배달시킨다.
- ③ (다) : 한참을 기다린 끝에 짜장면이 배달되고, 식은 짜장면을 먹는다.
- ④ (라) : 눈 속에 파묻혀 있는 사람이 유대리라는 것을 알고 조심스럽게 파헤친다.
- ⑤ (마) : 해는 기울었지만 눈을 파헤치면서 열기를 느껴 땀까지 흘린다.

인천고잔고등학교 (인천)

7. ㉠ ~ ㉤의 의미로 적절한 것은?

- ① ㉠ : 현대인이 느끼는 현실의 부담감
- ② ㉡ : 회사 출근을 방해하는 장애물
- ③ ㉢ : 따뜻하고 인간적인 소통의 매개체
- ④ ㉣ : 작품의 비극성을 강조하는 역할
- ⑤ ㉤ : ‘남자’의 미래를 암시하는 복선

인천고잔고등학교 (인천)

8.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은?

- ① ‘과장’은 타인에게 일상의 압박을 주는 인물이다.
- ② ‘남자’는 과장이나 유대리와 달리 서열 중심의 경쟁 사회를 거부하는 인물이다.
- ③ ‘유대리’는 타인과의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노력하지만 결국 도태되는 인물이다.
- ④ ‘남자’와 ‘유대리’는 결국 현대 사회에서 낙오되는 인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 ⑤ ‘남자’와 ‘배달원’은 생계유지를 위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을 상징한다.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분석 정리

작품 기법

감체	자유시, 서정시
성격	낭만적, 의지적, 감각적
제재	고양이
주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거부하고 자유로운 야생의 삶을 소망함.
특징	① 시적 화자의 소망을 고양이의 모습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냄. ② 특정한 어미(‘-리라’, ‘-겠지’ 등)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함. ③ 의성어와 의태어를 활용하여 고양이의 모습과 행동을 생동감 있게 묘사함.

작품의 구성

1연	자유로운 삶에 대한 소망
2연	시련 속에서도 이상을 추구하며 사는 삶에 대한 소망

핵심 1 ‘잠세’의 상징적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적 화자가 고양이로 태어난 삶에 속한 존재 • 시적 화자가 꿈속에서도 찾아다니는 대상 		
↓		
<table border="1"> <tr> <td>잠세</td> <td>(고양이로 태어난)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꿈, 이상, 목표 등을 의미함.</td> </tr> </table>	잠세	(고양이로 태어난)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꿈, 이상, 목표 등을 의미함.
잠세	(고양이로 태어난)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꿈, 이상, 목표 등을 의미함.	

핵심 2 시적 화자의 경서와 태도 변화

편안하고 안락한 삶 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툇마루에서 즐지 않으리라.’ • ‘사기그릇의 우유도 핏지 않으리라.’
자연 속에서의 야생적 삶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너른 벌판으로 나가리라.’ • ‘거기서 들쥐와 뛰어놀리라.’
원대한 꿈과 포부를 지닌 삶 지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일 큰 참새를 잡으리라.’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고고한 삶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둠을 핏으며 날가리를 찾으리라.’ • ‘내 잠자리는 달빛을 받아 / 은은히 빛나겠지.’ • ‘그래도 난 털끝 하나 적시지 않을걸.’
이상 실현을 포기하지 않는 삶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꿈을 꾸리라.’ • ‘놓친 참새를 쫓아 / 밝은 들판을 내닫는 꿈을.’

핵심 3 표현상 특징

‘-리라’, ‘-겠지’	→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함.
‘잘잘’, ‘사뿐사뿐’, ‘살금살금’, ‘폴짝폴짝’ 등	→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고양이의 모습이나 행동을 생동감 있게 묘사함.

자유로운 삶을 사는 존재
이다음에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 어미 '-리라'의 반복적 사용 → 운율
시적 화자의 소망을 드러냄, 형성, 시적 화자의 의지 강조

윤기 잘잘 흐르는 까망 얼룩 고양이로
생명력이 충만한 모습 ○: 의성어, 의태어의 사용 → 고양이의
태어나리라, 모습을 생동감 있게 묘사함.

사뿐사뿐 뿔 때면 커다란 까치 같고
민첩하고 날렵한 특성을 지님.

공처럼 둥굴릴 줄도 아는
유연함을 지닌 존재

작은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나는 뒷마루에서 졸지 않으리라, } 인간의 보살핌이 없는 자유로운 삶을 소망함.
인간의 보살핌을 의미함.

사기그릇의 우유도 핥지 않으리라, }
인간의 보살핌을 의미함.

가시덤불 속을 누벼 누벼

야생적인 삶

너른 벌판으로 나가리라.

야생적인 삶

거기서 들쥐와 뛰어놀리라.

배가 고프면 살금살금

참새 떼를 덮치리라.

한 마리가 아닌 '참새 떼'를 덮친다고 표현하여 큰 포부를 드러냄.
그들은 놀라 후다닥 달아나겠지.

아하하하

웃음소리를 그대로 제시하여 밝은 분위기를 형성함.

폴짝폴짝 뒤따르리라.

꼬마 참새는 잡지 않으리라.

'참새 떼'보다 작은 존재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음.
할딱거리는 고놈을 앞발로 톡 건드려

놀래 주기만 하리라.

그리고 곧장 내달아

제일 큰 참새를 잡으리라, ▶ 자유로운 삶에 대한 소망

'참새 떼'와 같이 커다란 존재를
잡겠다고 표현하여 큰 포부를 드러냄.

이윽고 해는 기울어

시간의 경과(저녁)

바람은 스산해지겠지.

시련을 상징함.

들쥐도 참새도 가 버리고

고양이의 먹이가 없는 상황

어두운 벌판에 홀로 남겠지.

고독한 공간을 상징함.

나는 돌아가지 않으리라.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거부함.

어둠을 뚫으며 날가리를 찾으리라.

고독을 즐기려는 태도가 드러남.

그 속은 아늑하고 짙단 냄새 훈훈하겠지.

야생적인 삶에서 아늑함을 느낌.

홀짝 뛰어올라 깊이 웅크리리라.

내 잠자리는 달빛을 받아

야생적인 삶을 의미있게 만들어 주는 존재

은은히 빛나겠지.

혹은 거센 바람과 함께 찬비가

시련을 상징함.

시련을 상징함.

빈 벌판을 쏘다닐지도 모르지.

그래도 난 털끝 하나 적시지 않을걸.

힘든 상황에서도 의지를 꺾지 않겠다는 다짐

나는 꿈을 꾸리라.

작품의 핵심 시어

놓친 참새를 쫓아

밝은 들판을 내닫는 꿈을.

목표를 이루지 못해도 다시 그 목표를 향해
꿈을 꾸겠다는 의지가 드러남.

▶ 시련 속에서도 이상을 추구하며 사는 삶에 대한 소망

‘다음 문장이란 태어나리라’ 그래픽 영작 모음

1. 작품에서 ‘참새’는 무엇을 상징하는지 생각해 보자.

참새는 시적 화자가 고양이가 되어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 속에 속한 존재이며, 동시에 시적 화자가 꿈속에서도 찾아다니는 존재이다. 따라서 참새는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꿈, 이상, 목표 등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2. 이 작품에서 다음 구절이 뜻하는 바를 써 보자.

나는 텃머루에서 들지 않으리라. 사기그릇의 우유도 할지 않으리라.	① 들쥐도 참새도 가 버리고 아두은 발꿈에 흙도 남겼지. 나는 돌아가지 않으리라.
인간의 보살핌을 받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거부함.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연 속에서 야생적인 삶을 추구함.

‘다음 문장이란 태어나리라’ 모용 작문

모용의 다른 작품: 정안숙의 <칼로 사과를 먹다>

이 작품은 칼로 사과를 깎는 일상적인 행위에서 얻은 삶의 깨달음을 노래한 시이다. 시적 화자는 칼로 음식을 먹는 행위를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는 것에 비유하면서 인간의 삶은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간체	자유시, 서정시
성격	체험적, 성찰적
제지	사과, 칼
주제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받는 일이 계속되는 현대인의 삶
특징	① 일상적인 체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드러냄. ② 따옴표와 괄호 등의 문장 부호를 사용하여 입체적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음.

모용이 유사한 작품: 유진오의 <봄은 고양이로>

이 작품은 고양이의 털과 눈, 입술과 수염에서 연상되는 봄의 향기와 불길, 졸음과 생기를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시인의 치밀한 분석과 생동감 넘치는 묘사에 주목하여 작품을 감상하도록 지도한다.

간체	자유시, 서정시
성격	감각적, 즉물적(관념이나 추상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사물을 감각적으로 묘사하는 경향)
제지	봄, 고양이
주제	타락한 세상을 사는 양심적 지식인의 비애
특징	사실주의 기법을 사용함.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다음에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윤기 짙달 흐르는 까망 얼룩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사뿐사뿐 뿔 때면 커다란 까치 같고
 공처럼 둥글릴 줄도 아는
 작은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나는 뒷마루에서 졸지 않으리라.
사기그릇의 우유도 할지 않으리라.
가시덤불 속을 누벼누벼
너른 벌판으로 나가리라.
 거기서 들쥐와 뛰어놀리라.
 배가 고프면 살금살금
참새떼를 덮치리라.
 그들은 놀라 후닥닥 달아나겠지.
 아하하하
 폴짝폴짝 뒤따르리라.
 꼬마 참새는 잡지 않으리라.
할딱거리는 고놈을 앞발로 툭 건드려
놀래주기만 하리라.
 그리고 곧장 내달아
제일 큰 참새를 잡으리라.

이윽고 해는 기울어
 바람은 스산해지겠지.
 들쥐도 참새도 가 버리고
 어두운 벌판에 홀로 남겠지.
 나는 돌아가지 않으리라.
 어둠을 핥으며 난가리를 찾으리라.
 그 속은 아늑하고 짙단 냄새 훈훈하겠지.
홀짝 뛰어올라 깊이 웅크리리라.
 내 잠자리는 달빛을 받아
 은은히 빛나겠지.
 혹은 거센 바람과 함께 찬비가
 빈 벌판을 쏘다닐지 모르지.
 그래도 난 털끝 하나 적시지 않을걸.
 나는 꿈을 꾸리라.
놓친 참새를 쫓아
밝은 들판을 내달는 꿈을.

- 황인숙,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소담고등학교 (세종)

1. 윗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높이고 있다.
- ② 상승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변화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③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대상의 모습을 생기 있게 표현하고 있다.
- ④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반복하여 화자의 불안한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일상을 벗어난 공간과 대비하여 일상의 공간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소담고등학교 (세종)

2. 윗글에서 ㉠에 담긴 의미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조건>

1. '뒷마루, 사기그릇'의 상징적 의미를 포함할 것.
 2. 시적 화자가 소망하는 삶의 모습을 제시할 것.

대일고등학교 (서울)

3. 윗글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뒷마루'는 인간이 주는 혜택이나 보살핌을 상징하는 시어이군.
- ② '고양이'는 시적화자의 소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대상이겠군.
- ③ '참새'는 시적화자가 추구하는 꿈, 이상, 포부 목표를 함축하겠군.
- ④ '어둠을 핥으며'에 시적화자가 고독을 즐기는 태도가 드러나며 이는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군.
- ⑤ '털끝 하나 적시지 않을 걸'에서 한계 상황에 부딪쳐도 좌절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드러내고 있군.

대일고등학교 (서울)

4. 윗글에서 밝은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시인이 의도적으로 사용한 시어를 찾아 쓰시오.

대일고등학교 (서울)

5. 윗글의 '바람'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시어를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벼는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
햇살 따가워질수록
깊이 익어 스스로를 아끼고
이웃들에게 저를 맡긴다.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더 튼튼해진 백성들을 보아라.
죄도 없이 죄지어서 더욱 불타는
마음들을 보아라. 벼가 춤출 때,
벼는 소리 없이 떠나간다.

벼는 가을 하늘에도
서러운 눈 씻어 맑게 다스릴 줄 알고
바람 한 점에도
제 몸의 노여움을 덮는다.
저의 가슴도 더운 줄을 안다.
벼가 떠나가며 바치는
이 넓디넓은 사랑,
쓰러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서 드리는
이 피 묻은 그리움,
이 넉넉한 힘…….

- 이성부, 「벼」

삼일여자고등학교 (울산)

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특정한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② 생명의 고귀함과 소중함을 고양이의 모습을 통해 말하고 있다.
- ③ 화자의 소망을 '고양이'의 모습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화자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거부하고 자유로운 야생의 삶을 소망하고 있다.
- ⑤ 의성어와 의태어를 활용하여 고양이의 모습이나 행동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삼일여자고등학교 (울산)

7. 윗글의 화자가 말하고 있는 '고양이'의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변의 사랑을 받는 존재
- ② 자유로운 삶을 사는 존재
- ③ 민첩하면서도 유연함을 지닌 존재
- ④ 생명력이 충만하고 의지적인 존재
- ⑤ 고독을 즐기며 시련에도 굴하지 않으려는 존재

삼일여자고등학교 (울산)

8. 윗글에 사용된 다음의 시어 중에서 성격이 다른 하나는?

- ① 툇마루 ② 가시덤불
- ③ 너른 들판 ④ 거센 바람
- ⑤ 찬비

pt005pt (카톡 ID)
내용 질문, 오류 신고

있다. 22.② 23.④ 24.⑤ 25. (1) 만연체 문장과 잦은 쉼표가 쓰였다. (2) 만연체 문장은 정돈되지 않은 사유의 전개 과정을 논리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며 잦은 쉼표는 긴 문장을 끊어 리듬감을 주는 동시에 인물의 심리를 섬세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26.③ 27.③ 28.① 29.⑤ 30.(나)는 의식의 흐름 기법을 통해 1930년대 일제 강점하에서 무기력했던 지식인들의 쓸쓸한 내면이라는 주제를 잘 드러내고 있다. 31.⑤ 32.⑤ 33.① 34.④ 35.④ 36.⑤ 37.1930년대 일제 강점하에서 무기력했던 지식인들의 고독과 쓸쓸한 내면 풍경이라는 주제를 잘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38.③ 39.④ 40.② 41.③ 42.④ 43.1930년대 일제 강점기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무기력한 내면 의식과 서울의 모습을 드러낸다. 44.㉠ 만연 ㉡ 잦은 쉼표 45.④ 46.⑤ 47.② 48.④ 49.② 50. ① 51.② 52.① 53.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여 1930년대 무기력한 지식인의 내면 의식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54.②

2-(1) 이생규장전

1.⑤ 2.죽은 '최 씨'가 등장하여 이승의 '이생'과 만나는 비현실적 사건을 통해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을 드러낸다. 3.④ 4.① 5.④ 6.⑤ 7.①② ③ 8.② 9. (1) 인물과 사회 (2) 인물과 사회 (3) 인물과 운명 (4) 죽음을 초월한 남녀간의 애절한 사랑이라는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10. (1) 옥이 부서지고 꽃도 흩날리네 (2) 흥건적의 침입 때문에 최 씨가 죽게 되었다. (3) 인물의 심리를 비유적, 함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1.④ 12.④ 13.④ 14.④ 15.② 16. ④ 17.③ 18.① 19.④ 20.(1) ㉠ 최 씨 ㉡ 두 번의 이별 (2) 이생과 최 씨의 이별을 암시한다. 21.인물의 심리를 비유적으로 표현한다.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한다. 22.② 23.② 24.③ 25.③ 26.④ 27.③ 28.④ 29. ④ 30.② 31.② 32.③ 33.죽은 최 씨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이다. 34.④ 35.③ 36.② 37. 이생과 최씨는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는 사랑으로 작품의 비극성을 높이고 있다. 38.(1) 흥건적의 난 (2) 창과 방패가 눈에 가득한 싸움터 39.옛 성현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이 살아 계실 때는 예로써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는 예로써 장사 지내야 한다.'라고 했는데 당신의 천성이 효성스럽고 인정이 두터웠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다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요. 40.①⑤ 41.③ 42.① 43.④ 44.④ 45.⑤ 46.② 47.③ 48.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성

격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인물의 능동적인 성격은 봉건적 사고와 세계의 횡포에 대한 저항을 효과적으로 그려 사랑과 자유로운 인간의 삶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49.① 50.⑤ 51.③ 52.죽은 최씨가 환생하여 이생과 인연을 이어가는 시절 53.③ 54.④ 55. ②

2-(2) 쉽게 씌어진 시

1.④ 2.암울한 시대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하고 시를 쓰는 소극적인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부끄러움을 느낀다. 3.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현실 속에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시를 쓰는 자신의 행위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4.② 5.① 6.(1) 조국의 광복, (2)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 (3) 내면적 자아, (4) 아름다운 혼 7.② 8.④ 9.② 10.⑤ 11.③ 12.⑤ 13.① 14.④ 15.③ 16.(1) ㉠ 현실적 자아이다. ㉡ 내면적 자아이다. (2) 최초의 악수 17.⑤ 18.① 19.④ 20.① 21.⑤ 22.④ 23.⑤ 24. ③ 25.① 26.③ 27.현재는 일제 강점기인 '어둠'의 암울한 상황이지만 반드시 '시대처럼 올 아침'인 조국 광복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등불'을 켜서 화자의 현실 극복 의지를 다짐한다는 의미이다. 28.현실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의 화해를 뜻한다 29.① 30.(가)의 등불은 일제 강점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와 희망을, (나)의 등불은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뜻한다 31.④ 32.④ 33.시적화자의 신분은 일본에서 공부 중인 유학생이다. 화자의 삶의 태도는 회의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진 모습으로 바뀌었다. 34.⑤ 35.① 36.⑤ 37.부끄러운 일이다 38.⑤ 39.② 40.④

2-(3) 스노우맨

1.④ 2.③ 3.③ 4.② 5.⑤ 6.② 7.① 8.② 9.⑤ 10.③ 11.④ 12.① 13.극심한 경쟁 사회 속에서 기계적인 노동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현대인을 상징한다. 14.② 15.④ 16.극심한 경쟁 사회 속에서 기계적인 노동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현대인을 상징한다. 17.② 18.③ 19.④ 20.③ 21.④ 22.④ 23.㉠현대인을 억압하는 장애물이나 시련, 부담감 ㉡상사인 과장의 압박, 경쟁 사회의 냉혹함에서 도태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가장'으로서 집안을 돌볼 수 있기 때문이다. 24.③ 5.① 6.극심한 경쟁 사회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현대인을 상징한다. 7.④ 8.② 9.③ 30.③ 31.③

32.① 33.⑤

2-(4)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1.③ 2.화자는 '사기그릇', '뒷마루'로 상징되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거부하고 야생에서의 자유로운 삶을 꿈꾼다. 3.② 4.아하하하 5.햇살 6.② 7.① 8.① 9.⑤ 10.④ 11.③ 12.목표를 이루지 못해도 다시 그 목표를 향해 꿈을 꾸겠다. 13.③ 14.⑤ 15.④ 16.④ 17.① 18.A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거부하겠다는 의미이다. B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고고한 삶을 추구한다는 의미이다. 19.A 음성상징어 B 폴짝폴짝 뒤따라리라(사뿐사뿐 뒀 때면, 배가 고프면 살금살금, 훌쩍 뛰어올라 깊이 웅크리리라) 20.⑤ 21.⑤ 22.④ 23.② 24.① 25.① 26.⑤ 27.① 28.③ 29.① 30.③ 31.④

2-(5) 저녁에

1.④ 2.⑤ 3.② 4.③ 5.⑤ 6.② 7.① 8.② 9.① 10.④ 11.③ 12. '별'은 '나'와 인연을 맺는 소중한 존재이다. 13.③ 14.④

2-(6)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1.⑤ 2.④ 3.④ 4.② 5.① 6.반어법을 통해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된 도시빈민의 비참한 삶을 강조한다. 7.④ 8.⑤ 9.다시 행복해지고 싶은 영희의 소망을 드러낸다. 10.③ 11.소설은 서술자가 다른 인물을 관찰하고 자신의 내면 심리를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드라마는 모든 인물을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관찰된 모습이 담기며 대사, 표정, 행동을 통해 사건을 전개한다. 12.⑤ 13.⑤ 14.② 15.③ 16.① 17.② 18.④ 19.③ 20.③ 21.② 22.⑤ 23.(1)급속한 도시 개발로 인한 소외현상 (2)'난장이'는 삶의 터전이 헐리고 얻은 입주권을 투기업자에게 팔게 되는 철거민이지만 '그'는 내 집 마련의 꿈으로 철거민의 입주권을 사는 인물이다. 24.② 25.④ 26.③ 27.④ 28.② 29.① 30.신체적 왜소함을 통해 사회적 왜소함을 나타내고 있다. 31.② 32.1970년대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된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상징한다. 33.③ 34.④ 35.③ 36.사회적·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

3-(1) 제가야산 독서당

1.③④ 2.④ 3.② 4.작품을 표기한 문자를 기준으로 삼았다. 5.작가가 한국인이다. 한국인의 정서와 사상을 표현하였다. 한글이 없던 시대나 한자가 한글과

함께 사용되던 시대에는 한문 또한 한국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6.화자는 자연을 자신의 소망대로 변화시키는 주관적 변용으로 속세와 단절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7.① 8.② 9.윗글은 시비하는 소리와 흐르는 물을 대조적으로 표현하였으며, 기승전결의 4단 구성으로 시상이 전개되었다. 10.② 11.작가의 맥락 12.③ 13.⑤ 14.② 15.③ 16.③ 17.② 18.한국인 작가 '최치원'이 쓴 것이며, 우리의 문자가 없던 시절에 한자를 사용하여 기록하였으며, 자연에 묻혀 살고 싶은 한국인의 정서와 사상을 내용을 표현했기 때문에 한국 문학으로 볼 수 있다. 19.③ 20.① 21.㉠ 일부러 흐르는 물로 하여금 온 산을 둘러싸게 했네 ㉡ 주관적으로 변용 21.㉠ 일부러 흐르는 물로 하여금 온 산을 둘러싸게 했네 ㉡ 주관적으로 변용 22.③ 23.③ 24.④ 25.② 26.③ 27.③ 28.② 29.화자는 자연에 묻혀 살고 싶은 심리를 드러내기 위해 자연의 소리에 해당하는 '흐르는 물'과 속세의 소리에 해당하는 '사람 말소리'와 '시비하는 소리'를 대조하여 표현하고 있다. '물소리'는 시적 화자와 속세를 단절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30.① 31.③ 32.② 33.⑤ 34.③ 35.⑤

3-(2) 황진이

1.④ 2.③ 3.남북이 공동의 기억을 환기하고 공유하여 서로의 이질성을 극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4.③ 5.② 6.① 7.③ 8.⑤ 9.⑤ 10.③ 11.⑤ 12.⑤ 13.③ 14.⑤ 15.㉠ 만장 ㉡ 상문살 16.② 17.③ 18.④ 19.④ 20.④ 21.② 22.④ 23.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문학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 확인할 수 있다. 24.① 25.④ 26.⑤ 27.④ 28.③ 29.황진이는 자신을 연모하다 죽은 총각의 혼을 진심으로 위로하므로, 따뜻한 심성을 가진 인물이다. 황진이는 사람들의 편견과 호기심 어린 시선에 맞서 당당하게 골목으로 나오는 것으로 볼 때 당찬 인물이다.

2-(3) 나도 그들처럼

1.⑤ 2.상호텍스트성의 맥락 3.② 4.화자가 긍정적으로 보는 대상은 바람, 비, 별, 대지, 숲이고, 이것들은 계산이나 해석되지 않는 자연의 본래 모습을 의미하며, 화자가 부정적으로 보는 대상은 계산, 측량, 해석, 부동산, 시계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분석적인 삶을 상징한다. '소용돌이'는 자연의 생명력이 있는 삶을 의미한다. 5.④ 6.③ 7.③ 8.④ 9.㉠ 봄을 맞

1-(1) 배를 매며

1.⑤

▶ 현실 극복 의지가 아닌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과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나타냄.

2.③

▶ 3연 '배를 둘러싼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을 통해 알 수 있음.

① 주체의 의지가 아닌, 운명적으로 찾아옴. ② 격정적이 아닌, 설렘과 기쁨을 깨달음과 함께 담담하게 노래함. ③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는지는 알 수 없음. ④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을 지켜낼 거라는 의지적 태도는 없음.

3.①

▶ 마음(마음)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 대상인 '너'로 형상화함.

◆주제 저장소◆

- ① <마음아 너는~>: 늙음을 한탄함
 마음아, 너는 어찌 늙어 있느냐.
 내가 늙을 때면 너인들 늙지 않겠는가.
 아마도 너(마음)를 좇아 다니다가 남을 웃길까 두렵구나.
- ② <꿈에나 님을 불러~>: 이별한 임에 대한 그리움
 꿈에서나마 님을 보려 잠을 자려고 누웠더니
 새벽달이 지새도록 우는 두견새 소리를 어이 하리?
 두어라, 애끓는 춘심이야 너나 나나 다르겠느냐.
- ③ <이런들 엇더하며~>: 자연에 동화된 생활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랴?
 시골에 파묻혀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 이렇다고(공명이나 시비를 떠나 살아가는 생활) 어떠하랴?
 더구나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 고질병처럼 된 버릇을 고쳐서 무엇하랴?
- ④ <집 방석(方席) 내지 마라~>: 자연 속의 소박한 풍류
 짚으로 만든 방석을 내지 말아라. 떨어진 나뭇잎엔들 알지 못하겠느냐.
 관솔불을 켜지 말아라. 어제 췌던 밝은 달이 돌아온다
 애야! (이 아름다운 가을밤에 진수 성찬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변변치 않은 술과 나물일지라도 좋으니 없다 말고 내오너라.
- ⑤ <노래 삼긴 사람>: 노래를 통해 시름을 풀어보고자 함
 노래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 근심과 적정이 많기도 많았구나.
 말로 하려 하나 다 못하여 (노래로) 풀었던 말인가!
 진실로 풀릴 것이면 나도 불러 보리라.

4.⑤

▶ 윗글에서 자연을 의지적인 존재로 형상화한 것은 없음.

① 윗글에선 '털썩', <보기>에선 '짜그락', '난분분' 등의 음성 상

징어를 통해 생동감을 주고 있다. ③ 윗글에선 '사랑은 배를 매게 되는 것'이 은유법이며, '햇솥 같은 마음'이 직유법이다. 이렇게 비유법을 사용하여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첫사랑>

*주제: 인내와 헌신으로 피워 낸 아름다운 사랑

*해제: 이 시는 한겨울 나뭇가지에 눈꽃이 피고, 그 나뭇가지에 봄이 되면 다시 꽃이 피는 자연 현상에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이 시는 사랑의 아름다운 결실을 위해서는 한 대상에 대한 오롯한 인내와 헌신이 필요함을 눈과 나뭇가지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보여 주고 있다.

▶어머, 이견 외워야 해!◀

1. 음성 상징어 (★★★)

: 사람이나 동물의 소리를 흉내 낸 말. (의성어/의태어)

<의태어: 대상의 모양, 움직임 흉내>과 <의성어: 대상의 소리 흉내>는 확실히 구분되기도 하지만 한 단어가 의태어로도 의성어로도 쓰일 수 있으니 문맥 속에서 잘 따져야 한다.

퍼덕퍼덕: 큰 새가 가볍고 크게 잇따라 날개를 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부글부글: 많은 양의 액체가 야단스럽게 잇따라 끓는 소리.
 또는 그 모양.

2. 빈출 비유법 (★★★)

- 1) 직유법: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것. '마치', '흡사', '같이', '처럼', '듯' 등의 연결어를 사용함.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 2) 은유법: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것. 'A는 B다'라는 형태로 표현됨. (내 마음은 호수요)
- 3) 의인법: 사람이 아닌 동식물이나 무생물, 개념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 (별이 내게 속삭였다.)
- 4) 활유법: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 (냉장고가 숨을 쉬고 있다)
- 5) 풍유법: 원관념을 드러내지 않고 보조관념으로 뜻을 암시하는 것. (등잔 밑이 어둡다)
- 6) 대유법: 대상의 부분, 특징, 모양 등을 들어, 대상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빵: 음식, 먹거리)
- 7) 의성법: 사물의 소리를 본 딴 말을 사용하여 실제와 비슷하게 나타내는 방법. (명명, 졸졸졸)
- 8) 의태법: 사물의 모양을 본 딴 말을 사용하여 실제와 비슷하게 나타내는 방법. (영금영금, 슬금슬금)

3. 열거 vs 반복 vs 대구 (★★)

- 가. 열거 (나열): 비슷한 말을 늘어놓음.
 (딸기, 포도, 사과는 과일의 종류이다)
- 나. 반복: 동일한 말을 연속적으로 사용. →운율 형성!
 (눈, 눈, 눈이 내린다)
- 다. 대구: 문장의 동일한 구조를 짝지어 줌 →운율 형성!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

5.⑤

① '밭줄'은 화자에게 날아온 것이지 화자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 ② '천천히', '조용히'는 배의 움직임과 관련됨. ③ '부딪기'는 사랑의 인연을 받아들여지게 되는 곳임. ④ '잔잔한 바닷물'은 배를 둘러싼 주변 환경일 뿐임.

7.②

▶'밭줄'은 사랑의 대상과 맺는 인연임.

9.①

▶둘 다 과거와 현재의 대비는 없음.

<어저 내 일이야~>

*주제: 임에 대한 그리움

*해제: 작품은 임을 떠나보낸 후의 회한(悔恨)을 진솔하게 나타낸 작품이다. 애절한 심리를 섬세하게 포착하여 우리말의 절묘한 구사를 통해 표현하였다. 자존심과 연정 사이에서 겪는 오묘한 심리적 갈등을 드러내며,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외롭고 약한 화자의 마음이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초장에서 '어저'라는 감탄사로 시작하며 그리움의 정서를 집약적으로 표현했고, 중장과 종장의 행간에 걸쳐진 '제 구태여'라는 도치법(또는 행간 걸침)의 표현이 돋보인다. 고려 가요 '가시리', '서경별곡'과 함께 현대 시 '진달래꽃'을 매개하는 이별가의 절창으로 평가받는다.

*현대어 풀이:

아! 내가 한 일이 후회스럽구나. 이렇게도 사무치게 그리울 줄을 미처 몰랐더냐?
있으라 했더라면 임이 굳이 떠나시려 했겠느냐마는 내가 굳이 보내 줄고는
이에 와서 새삼 그리워하는 마음을 나 자신도 모르겠구나.

▶어머, 이견 외워야 해!◀

1. 시적 어조의 종류 (★)

- 1)청자의 유무: 독백조, 대화조
- 2)화자의 유형: 남성적, 여성적 어조
- 3)청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 명령, 찬양, 의문, 청유 등
- 4)화자의 감정 상태: 걱정적, 영탄적, 관조적, 애상적, 긍정적 등
- 5)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 냉소적, 친화적, 비판적, 우호적, 풍자적, 해학적, 반어적 등

2. 대비:

두 가지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서로 맞대어 비교함.
→ 대비라고 해서 반드시 반대의 맥락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대상 간의 차이점만 있어도 대비라고 볼 수 있다.

10.④

▶㉞: 사랑의 맺어짐은 서로의 꿈과 기쁨과 세월이 함께 맺어지는 것이라는 의미임.

11.⑤

- ①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에서 우연히 사랑이 시작되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지 화자의 답답한 마음을 강조하는 건 아님.
- ②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에서 반가운 마음으로 사랑을 맞이하는 것이지 멀어지는 인연을 지속하고 싶은 것은 아님.
- ③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는 배의 움직임과 관련됨.
- ④ '넋놓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은 갑자기 배를 매듯 운명적으로 찾아오는 사랑을 말함.

12.③

ㄷ: 의인법은 없음.

▶넣어둬, 패턴 공략◀

자주 출제되는 선지 대립 양상

자연적 ↔ 인위적 / 객관적 ↔ 주관적 / 능동적 ↔ 수동적
내재적 ↔ 외재적 / 추상적 ↔ 구체적 / 내적 ↔ 외적
본질적 ↔ 현상(현실)적 / 자연적 ↔ 속세 / 물질적 ↔ 전통적

▶어머, 이견 외워야 해!◀

1. 의인법 vs 활유법 (★★★)

- ㄱ.활유법: 무생물을 생물인 것처럼, 감정이 없는 것을 감정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법.
 - ㄴ.의인법: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비겨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법.
-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이면 의인법, 인간을 포함하여 다른 생물체까지 나타나는 특성이면 활유법이다.
(새가 노래를 부른다'→노래는 사람만이 부르는 것이므로 의인법에 해당, '바위가 숨을 쉬고 있다'→숨을 쉬는 것은 인간이 아닌 동물도 가능하므로 활유법에 해당)

2. 통사 구조의 반복 vs 대구법 (★)

- ㄱ. 통사 구조의 반복: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바람도 없는 공중에~누구의 발자취입니까? / 지리한 장마 끝에~누구의 얼굴입니까?)
- ㄴ. 대구법: 비슷한 어구를 짝지 지어 놓는 것 (돌담에 속삭이는 햇살같이 / 풀 아래 웃음짓는 샘물같이)

통사 구조의 반복 중에서 두 어구가 바로 짝을 지어 나타나면 대구법이 됨.

13.①

▶동일한 종결어미인 '다'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감을 형성함.

<울타리 밖>

*주제: 아름다운 자연과 인간의 조화 소망

▶어머, 이견 외워야 해!◀

1. 반어 vs 역설 (★★★)

- ㄱ.반어: 겉표현과 속마음이 반대.
(지각한 학생에게 "참 빨리도 왔다"라고 비꼬)
- ㄴ.역설: 겉표현은 모순되지만 깊은 속 뜻 나타냄.
(님은 갔지만 님을 보내지 않았다)